

피 땀 눈물을 복음의 작품으로 남긴 70인 제자 예레미야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애가 3:1-13, 마태복음 27:21-31

정운돈 목사님

* **애3:1-13** 여호와와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 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름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었드려 기다리는 고향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과녁으로 삼으심이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 **마27:21-31**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짐 뺏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램넛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를 복음화 할 만한 주역으로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놓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미래는 캄캄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꺾박한다.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5년, 10년, 20년을 기다려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포기하려고 해도 은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포기도 못한다. 이런 분들이 더러 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예레미야가 그런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젊을 때 불렀는데 되는 일은 없었다.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림에도 하나님은 계속 사명을 주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고 뜰에 가두고 구덩이에 넣어버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전도는 안 되고 사람들은 시험 든다. 내가 하는 다라방만 문이 닫힌다.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와 분노의 매로 고난당하는 자는 나라고 말한다. 3년 기다리라면 다 하겠다. 노숙도 3년 하라면 하겠다. 직장생활도 3년 하라면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하겠다. 그러나 30년, 40년 해야 한다. 신앙생활과 봉사도 3년만 하면 하겠는데 20년, 30년, 40년 해야 한다. 그래서 지칠 수 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다. 갈수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마지막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잘 정리했다. 그 정리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애가다. 작품으로 남겼다. 예레미야와 같이 평생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분명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70인 제자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성공자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 사람이 성공자다. 이미 성공자이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어야겠다. 행복자가 될 때 정복자가 될 수 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다. 문제 앞에서 감사했다. 바울은 평생 기도했었는데도 낮지 않는 병이 있었다. 그러나 그걸 감사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다. 내가 행복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정복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한다.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성공자다.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하나님께 강제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성공자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신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조건과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님의 피, 땀, 눈물은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남겨졌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후대와 교회를 위하여 흘린 피, 땀, 눈물도 최고의 작품으로 남겨질 것이다. 제가 램넛트들을 구원의 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영상이 없어지질 않는다. 9년 전에 올렸는데 9년 전 모습 그대로다. 운동하는 모습도 인스타그램에 다 올린다. 성탄행사도 뮤지컬로 만들어서 다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세계 237을 살리는 작품을 남길 것이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도전을 멈추지 말고 불신양하면 안 된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남긴 영적인 작품인 예레미야애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다. 예레미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땀,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이 예레미야 또한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피, 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과 고통과 피, 땀, 눈물을 5편의 시로 남겼다. 그 작품이 바로 예레미야애가다. 어떤 분을 보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불평과 불만을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절대 성장이 없다. 문제를 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정리해야 한다. 거지 나사로는 행복한 거지였다. 꼭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성공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거지로, 노예로, 포로로, 총리로 만들 수 있다. 많은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불만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의 이유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237나라를 살릴 사람으로 세우시는 구나’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이 있지만 정리해야 한다. 반대만 안 해도 불신양만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은 237을 살릴 수 없다. 25시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3천 제자를 세울 수 없다. 여러분은 25시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3년체를 살릴 복음엘리트를 만들 수 없다. 믿음이란 된다. 불신양만 안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불신양해도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진다. 단지 여러분만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다. 항상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기 위한 바탕이 은혜고, 믿음이고, 말씀이고, 예배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거듭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남겨야겠다. 후대에 보여줘야 할 것이 믿음이다. 후대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한다. 여러분은 어떤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우리 교회와 교단은 어떤 작품을 남겨야 할까?

1. 오늘 다시 한 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하여 년도 손으로 설명해 드리겠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한 것이 메시지하고 고난당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1차, 2차, 3차로 포로에서 귀환 때 항상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레미야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BC.930년에 솔로몬 왕이 사망했다. 이후 이스라엘 왕국 12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다. 분열된 이유는 솔로몬의 잘못 때문이다. 이후 약 209년 동안 지속해오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BC.722년에 앗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다. 209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들이었다. 19명의 악한 왕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뭘까? 19명의 왕들이 다 악했던 이유는 북왕국의 왕들에게는 다윗의 언약의 피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언약이 없이는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정도 조금 선하고 괜찮은 이유는 내 안의 복음이 그 순간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선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 살려야 할 대상,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대상이다. 싸울 대상이 아니다. 그게 선교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왕국이 지속되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약 95년이 지난 BC.627년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BC.622년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일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한 지 약 10년이 지난 BC.609년 요시아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대항하다가 마그닷

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오래도록 이해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했는데 너무 허망하게 전쟁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었다. 요시아 왕이 사망한 상황에 대하여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뜨겁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자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에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우리는 요시아 왕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5장 21절에 보면 애굽의 그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다. 요시아 왕이 1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지만 오히려 요시아 왕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때에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25절에 비겁해져서 변장해서 싸우고자 했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 왕이 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우리의 평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했지만 언약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 BC.605년에 남유다 백성은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 램넛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어린 경고를 잊지 않았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래서 영적인 무한대를 누렸다.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였다. 거기서 하늘보좌를 누린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기는 방법은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변모술수를 쓰고 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절대목표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다. 그 후 BC.597년에 남유다 백성은 2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BC.586년에 남유다 백성은 3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과 눈물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애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대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램넛들을 통하여 절대가능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예레미야애가서를 인생의 작품으로 남겼던 것이다.

2. 예레미야애가에 기록된 내용 중에 중요한 말씀들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1) 예레미야애가 1장과 2장과 4장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은 슬프다는 말로 시작한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또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시라”고 했고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 불신앙하다가 재앙만난 사람들이 있다. 노예와 포로, 속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받은 고난과 예레미야의 고난은 성격이 다르다. 요셉의 고난과 내가 잘못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 내게 이유없는 고난이 온다면,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과 미션을 찾아야 한다. 내 인생과 가문, 교회, 후대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걸 믿고 준비해야 한다. 정리해야 한다. 그 그림을 미리 보고 그려야 한다. 잘못해서 오는 문제와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인지 징계인지 구분을 잘 해야겠다.

(2) 예레미야 선지자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의 시대에 영적인 플랫폼, 복음의 피수명대, 기도의 안테나의 역할을 하였다. 예레미야애가는 5편의 시로 된 문학작품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이 모두 22절로 되어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이다. 3장은 22절의 3배인 66절로 되어있다. 즉, 1장부터 5장은 모두 답관체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른 완전한 답관체 형

식을 취하는 작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과 핍박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시로 만들었다. 정리했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알았다는 것이다. 예레미야애가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복음의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자신들의 과거의 고난과 실패와 재앙과 실수까지도 믿음의 간증으로 승화시킨 분들이 많이 있다. 나중에는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중요한 역사적인 자리에서 플랫폼, 파수명대, 안테나의 역할을 끝까지 담당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였다.

(3) 세 번째로 예레미야애가 5장 전체는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이다. 특히 예레미야애가의 결론적인 요절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말씀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문구에서 우리는 ‘우리를’이라는 단어 대신 가족과 전도대상자와 나라를 넣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운동이며, 전도운동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다. “우리 아버지, 남편을 주께로 돌이키소서”, “자녀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대한민국을 주께로 돌이키소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주께로 돌이키소서”, “237나라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해 주셨던 것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는다.

예레미야는 피, 땀, 눈물을 흘리며 그 인생을 전도와 복음을 위한 역사적인 작품으로 남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작품을 남겨야 할까? 우리는 후대 램넛과 전도를 위한 5가지 RUTC를 작품으로 남겨야 하겠다. 저는 저에게 주신 Heavenly Talent가 뭔지 기도했다. 저의 70현장이 뭔지를 질문했다. 하나님께서 운동으로 응답하셨고,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재밌다. 옛그제는 프리다이빙을 했다. 숨 쉬지 않고 10미터를 내려갔다. 두 번째에는 14미터를 들어갔다. 죽을 것 같으니까 진정한 호흡기도가 되더라. 이 새로운 세계에서 얻어지는 특별한 재미가 있다. 이제 237 나라 바닷가에 가서 잠수할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스키 탈 때에 친구 한 명이 보드 잘 탄다고 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다. 리프트에서 인생이야기와 복음이야기를 했다. 불신자를 만나야 한다. 이게 RUTC운동이다. RUTC란, 후대를 237치유서밋으로 만들기 위한 5가지 영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R은 remnant, U는 unity, T는 training, C는 center를 의미한다.

① 제 1RUTC운동이다. 제 1RUTC운동이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기 위한 복음훈련과 전도훈련을 의미한다. 우리 교단은 이 복음과 전도를 세팅하기 위하여 20가지 성경적인 전도훈련을 하고 있다. 각종 모든 집회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② 제 2RUTC운동이다. 제 2RUTC운동이란, 지역 곳곳에 RUTC센터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 건물들은 전도훈련, 미션홈, 문화, 복지, 교육, 예체능과 산업선교까지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의미한다. 하나하나 만들 때에 올인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만들어진다. 올인해서 하나 살리면 두 번째에 올인하고, 세 번째에 올인하면서 만들어가야겠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올인해라. 램넛들 탁구 몇 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잘하더라. 한 가지만 올인하면 된다. 2월 달부터는 서예를 할 것이다. 서예하시는 분은 그것만 올인하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③ 제 3RUTC운동이란, 모든 현장에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전도훈련이 된 서밋 램넛들과 중직자들을 파송하는 것이다.

④ 제 4RUTC운동이란, 세상 문화와 사탄에게 속아 우상, 종교, 이념 등의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현장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3단체와 무슬림, 불교, 공산주의까지 다 살려내야 한다.

⑤ 제 5RUTC운동이다. 제 5RUTC운동이란, 예레미야 시대처럼 또 다시 회미해진 복음운동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복음운동도 언젠가 회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1, 2, 3, 4, 5RUTC운동을 237 나라와 70현장에 세팅하는 일에 올인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주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천명, 소명, 사명과 절대미션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대 램넛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선조보다 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복음화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